

<서평>

## ***Translation That Openeth the Window:***

### ***Reflections on the History and Legacy of the King James Version***

(David G. Burk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3,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9)

이환진\*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제임스왕역(KJV)<sup>1)</sup> 출간 400주년인 올해를 맞이하여 제임스왕역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데이빗 버크가 편집한 『창문을 연 번역 - 제임스왕역의 역사와 유산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책은 모두 12명의 학자들이 쓴 글을 모은 책으로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의 제목은 “제임스왕역 이전의 성경 번역 세계”(The World of Bible Translation Before the King James Version)이고 제2부는 “제임스왕역을 만들기까지”(The Making of the King James Version) 그리고 제3부는 “제임스왕역 이후의 성경 번역 세계”(The World of Bible Translation After the King James Version)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는 제임스왕역의 초판 서문을 현대 영어 철자로 바꾸어 실었고, 또 의미가 달라진 낱말의 표를 함께 실어 제임스왕역을 읽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 2. 1부: 제임스왕역 이전의 성경 번역 세계

### 2.1. 제임스왕역 이야기

제1부는 “제임스왕역 이전의 성경 번역 세계”라는 제목으로 제임스왕역

---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제임스왕역”은 King James Version이나 King James Bible을 번역한 것으로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역임하신 민영진 박사의 용어임을 밝힌다. 이 영어성경은 “흠정역”(欽定譯)으로 부르기도 하나 “제임스왕역”이란 용어가 더 알아듣기 쉬울 듯하여 이 서평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전의 배경을 말한다. 먼저 맥그래드(Alister McGrath)는 “제임스왕역 이야기”(The Story of the King James Bible)라는 글에서 제임스왕역의 탄생 배경과 특징을 말하고 있다. 제임스왕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스코틀랜드 출신인 제임스 제6세가 영국의 왕이 되면서 주도한 1604년 햄튼 왕실 회의(The Hampton Court Conference)라고 한다. 이 회의에서 영국 청교도의 지도자인 존 레널즈(John Reynolds)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임스왕역은 종교적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한 영국 청교도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나온 성경인 제네바성경이나 감독성경을 영국 청교도들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6개의 팀으로 나누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외경을 번역한 최종 원고는 영국 성공회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나중에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리처드 뱅크로프트(Richard Bancroft)는 번역 원칙을 작성한 인물이다. 이 번역 원칙에는 어떤 종교적 편향성도 없어야 한다는 것도 들어 있지만, 특히 틴들(Tyndale) 번역을 위시한 이전 번역들을 많이 따르도록 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1604년 후반에 50여 명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 번역가들이 번역을 시작하여 1610년에 번역이 끝났다. 그리고 검토 위원회가 일관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번역을 최종 검토하고 왕실 인쇄업자인 로버트 바커(Robert Barker)가 인쇄하여 1611년에 나왔다. 그런데 제임스 왕은 새 번역을 내도록 명하기는 했으나 이 책을 내는 데 재정적으로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번역료나 인쇄비는 순전히 인쇄업자의 사적인 투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첫 판은 오타가 많았다. 인적, 물적 재원이 부족한 탓이었다. 따라서 이런 오류를 많이 줄인 제임스왕역은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1675년 판이다.

아무튼 “그리스인에게 호머가 있고 아랍인에게 코란이 있다면 영국인에게 는 성경(제임스왕역)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영어에 끼친 제임스왕역의 영향은 엄청났다.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영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번역가들은 정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작업했지만 결과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이라는 평가를 가져왔다. 이 결과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였다고 말한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성경을 문학으로 보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뜻 깊은 번역이기도 하다. 축자적 번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제임스왕역은 따라서 영어 구문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쳐 오늘날까지도 관용어로 사용되는 표현이 많다. 구약에서는 “마음을 쏟아놓다”(to pour out one’s heart)나 “해 아래”(under the sun) 또는 “입에 말을 담다”(to put words in his mouth)와 같은 표현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몸의 가시”(a thorn in the flesh)나

“일이 생겼다”(and it came to pass)와 같은 표현이 그런 표현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관용적 표현을 그대로 번역한 예는 제네바성경 같은 이전 성경보다도 그 빈도수가 훨씬 많다. 또 제임스왕역에는 당시에 죽어가던 고어(古語)가 많이 들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Thee”와 “Thou” 그리고 “Thy”와 “Thine”이다. 그리고 “its”라는 뜻으로 중세 영어인 “his”라는 말을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제임스왕역은 출간 당시로서도 구식이었던 용어가 들어 있는 성경이기도 하다. 제임스왕역 출간 이후 150년간은 비평과 불만, 불평이 없지 않았으나 이후 150년간은 고전으로 이 성경을 받아들였는데 특히 18세기와 19세기에 영어의 모델로 받아들였다.

## 2.2. 제임스왕역의 유산

다음으로 벤슨 보브릭(Benson Bobrick)은 “제임스왕역의 유산”(The Legacy of the King James Bible)이라는 글에서 제임스왕역 이전의 성경 번역가들을 말한다. 이들은 교회 개혁가들이었다. 최초의 영어성경 번역가 위클리프는 결국 그가 죽은 뒤에도 교회가 무덤에 있는 그의 뼈를 꺼내어 불태운 뒤 강에 뿌렸다. 이후의 성경 번역가인 윌리엄 틴들 또한 1525년 신약을 영어로 번역하였다. 수천 권이 영국에서 읽힐 만큼 인기를 누린 이 성경은 “마법 같은 표현의 간결성”으로 그 아름다움을 뽐낸 성경으로, 많은 표현이 훗날 제임스왕역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이후에 요나서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역대하까지 번역하였으나 구약을 끝내지 못하고 가톨릭 당국자들에게 붙잡혀 일 년 동안 구덩이에 갇혀 고문 등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 불타 죽고 만다. 이후에 마일스 커버데일(Miles Coverdale)과 존 로저스(John Rogers)는 제네바성경을 유배 중에 펴내기도 하였다.

결국 제임스왕역은 이전에 나온 여러 번역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예는 이렇다. 틴들역에서 온 표현으로는 “평화를 이룩하는 자”(peacemaker), “유월절”(Passover), “오래도록 고통당하는”(long-standing), “희생양”(scapegoat),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the Lord’s anointed), “젖과 꿀이 흐르는”(flowing with milk and honey), “부정 이득”(filthy lucre), “세상의 소금”(the salt of the earth),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등이 있고, 커버데일역에서 온 표현으로는 “부드러운 자비”(tender mercy), “편애”(respect of persons), “자애”(loving-kindness), “완벽한 바벨”(a perfect Babel), “최후의 순간”(the eleventh hour),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다”(to cast pearls before swine) 등이 있고, 제네바성경

에서 온 표현으로는 “헛되고 헛되다”(Vanity of vanities)와 “거듭난 사람을 제외하고”(except a man be born again) 등이 있으며 위클리프역에서 온 표현으로는 “죽다”(gave up the ghost), “늙은”(well-stricken in age), “잠자코 있다”(held his peace), “70세”(three score and ten), “(육적으로) 알다”(to know), “문은 좁고 길은 험하다”(Strait is the gate and narrow the way),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a well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 등이 있다.

이어서 저자는 성경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읽을 수 있게 되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도 쓰여 있듯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동등하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임스왕역이 보편적으로 읽게 된 이후로 영국의 전통 민속가요의 형태로 성경이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12일의 크리스마스”(The Twelve Days of Christmas)나 “아, 나무는 푸르게 자라나누나”(Green Grow the Rushes O)와 같은 노래가 대표적이다.

### 2.3. 제임스왕역 이전의 번역 전통

다음으로 린 롱(Lynne Long)은 “제임스왕역 이전의 번역 전통”(Preparing the Way: Traditions of Translation Before the King James Bible)이라는 글에서 제임스왕역 이전에 대부분 성경은 구전 문학 형태로 이어져 나왔다는 점을 말한다. 곧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던 사제들이 각 지방 말로 설교하고 찬송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구전 형태로 전달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십자가의 꿈”(The Dream of Rood)이라는 서사시의 마지막 열두 행이 스코틀랜드 덤프리셔(Dumfriesshire)에 있는 루드웰(Ruthwell) 십자가에 남아 있는데 이 십자가는 750년 경의 것으로 십자가에 얽힌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7세기 후반의 케드몬(Caedmon)의 찬양 시 또한 라틴어 성경에 바탕을 둔 구전 문학이었다. 이러한 구전 문학의 흐름과 맞물려 라틴어 성경을 고전 영어로 옮기고자 했던 인물로는 9세기의 알프레드(Alfred) 왕과 10세기의 엘프릭(Aelfric)이 있다.

10세기경에는 라틴어 성경에 영어 설명이 붙은 주(註)를 단 복음서 사본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복음서의 경우 라틴어 본문이 없이 앵글로색슨어 주(註)만 따로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1200년 경에는 Ormulum이라는 시 형태의 복음서가 나오기도 하였다. 백년 뒤에는 구약과 신약에서 뽑은 내용을 시 형태로 묶은 Cursor Mundi가 나오기도 했고, 또 1400년 경에는 프랑

스어에서 고(古) 영어로 시편과 복음서 합본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부분적인 번역 성경 말고도 후대의 성경 번역에 기여한 것으로는 라틴어로 쓴 성경 주석으로, 12세기에 나온 피터 콤포스터(Peter Comestor)의 주석과 13세기에 나온 리라의 니콜라스(Nicholas of Lyra)의 주석이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각 지방어로 쓴 종교 작품이나 언어학이나 지도와 배경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서도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영어로 성경이 완역된 것은 1380년대와 1390년대인 데 위클리프 성경(the Wycliffite Bible)이었다. 라틴어 불가타역을 영어로 옮긴 이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하나는 첫 영어성경으로 선구자적인 작품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압력으로 번역가들이 위험 속에서 작업을 해냈다는 점이다. 정치 당국은 이른바 “성경의 오독(誤讀)”에 신경 썼으나 위클리프는 누구나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위클리프 성경의 첫판은 존 위클리프를 따르던 자들이 번역한 것이고 2년 뒤에 개정판이 나온다.

이즈음에는 성극(聖劇)이 인기가 있어서 구전으로 성경 내용이 대중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신비극(the Mystery plays)이라는 장르가 대표적이었다. 교리와 신학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나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들어서서 이런 공연이 여러 이유로 자취를 감추었으나 20세기에 다시 부활하여 몇몇 지역의 성당 유적지에서 매년 공연하기도 한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성경 번역 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인문학자들이 원문 수집과 원문 분석에 집중한 결과 불가타역과 그리스어 원문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신약으로 펴낸 불가타역 신약 교정본이 그 대표적이다. 1522년에 마틴 루터가 그리스어 성경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신약은 종교 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윌리엄 틴들도 루터역 신약을 모델로 1526년에 신약을 영어로 번역하였다. 1535년에 나온 커버데일 성경이나 1537년에 나온 매튜 성경은 틴들의 이름만 없을 뿐 틴들역의 개정본들이었다. 1539년의 대 성경과 1568년의 감독성경도 이 전통에 서 있는 성경들이다. 이외에도 유배지에서 번역한 두 성경이 있다. 하나는 1560년에 나온 제네바성경(the Geneva Bible)으로 윌리엄 위팅햄(William Whittingham)이 메리 여왕 시절 제네바로 유배를 가서 번역한 성경이다. 가톨릭교회에서도 개신교회의 번역에 대응하여 라임-듀아이성경을 1609년에 펴냈는데 그리스어 성경을 참조하여 불가타역에서 번역한 것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유배지에서 번역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는 문학과 문

화가 꽃피던 시절이었다. 이즈음에 나온 성경은 모두 신앙의 갈등 속에서 나온 것들이어서 대부분 대중적이지 않았으나 셰익스피어의 성경으로 알려진 제네바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다.

7세기부터 시작된 영국의 구전 전통과 문학 전통 그리고 성경 번역 전통이 성경의 “영어화”(Englishing)에 기여했다. 영국으로 기독교가 처음 들어가던 시절에 영어는 안정적이지도 않고 발전도 덜 되던 때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성경 속의 이야기를 입으로 설교하고 연극과 문학으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가 자리를 잡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 2.4. 제임스왕역의 문헌 자료

다음으로 존 콜렌버거(John Kohlenberger III)는 “제임스왕역의 문헌 자료”(The Textual Sources of the King James Bible)에서 제임스왕역의 번역 자료에 집중한다.

리처드 벤크로프트(Richard Bancroft)가 작성한 제임스왕역의 번역 원칙 6에는 번역 대본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경이라고 나오고,<sup>2)</sup> 번역 원칙 14에 따르면 주로 참조할 영어성경은 감독성경이지만 틴들역과 매튜성경과 커버데일역과 대 성경과 제네바성경도 참조하라는 것이었다. 번역 원칙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라임-듀아이역(1582) 신약도 참조하였다. 번역 원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자적으로 번역하라는 것이다. 번역 원칙 6에 따르면 “난하주는 달지 않는다. 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붙인다”라고 했는데 이 원칙에 따라 구약에는 4,111개, 외경에는 138개, 신약에는 112개의 난하주가 제임스왕역에 들어 있다. 다음으로 다른 영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다는 사실은 히브리서 11:1을 예로 들어보면 분명하다.

Faith is the ground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cene. (감독성경)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2) 콜렌버거는 당시에 나온 대표적인 라틴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스어, 라틴어 번역이 들어 있는 콤플루텐시안 폴리글로트(Complutensian Polyglot, 1522)와 제2바티칸 공의회까지 가톨릭교회의 표본 본문이었던 클레멘타인 불가타역(the Clementine Vulgate, 1592)을 예로 든다. 또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야콥 벤 하임의 람비 성경(1524-1525)을 들고, 그리스어 성경으로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라틴어 신약(1516)과 존 갈뱅의 계승자인 테오도어 베자(Theodore Beza)의 그리스어 신약(1565-1604)을 예로 든다.

the eviduce of things not seen. (제임스왕역)

이렇게 대부분 감독성경을 따랐지만 “Now”는 제네바성경을 따른 것이고 “substance”는 라임-듀아이성경을 따른 것이다. 난하주에는 “substance”에 대해서 “or, ground, or, confidence”라고 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성경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감독성경(“ground”)과 틴들역(“confidence”)을 참조한 것이다.

이독(離讀, variant readings)의 경우, 다른 난하주와 구별하지 않고 단지 “Or”로만 표기하기도 하였다. 구약은 67개의 이독이, 외경은 156개의 이독이, 신약은 37개의 이독이 들어 있다. 구약의 경우 마소라 본문의 케티브를 본문에, 케레는 난하주에 실었다(시 100:3). 그러나 본문에서는 마소라 본문을 따르고 난하주에서는 70인역과 불가타역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에 14:12). 신약의 경우 요한일서 2:23이 특이한 경우이다.

Whosoeuer denieth the Sonne, the same hath not the Father;  
*but he that acknowledgeth the Sonne, hath the Father also.*

위 문장은 대부분의 그리스어 본문 전통을 따른 것이지만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에라스무스나 콤플루텐시안 폴리글로트, 알두스, 스테파누스, 베자 1.2 그리스어 본문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 성경과 감독성경의 본문에는 위치럼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네바성경(1560)의 난하주에도 들어 있다. 불가타역을 따른 라임-듀아이성경은 이탤릭체 없이 본문에 들어가 있다. 이러한 예를 보면 신약의 경우 원문을 따르는 것도 이른바 텍스투스 레셉투스(Textus Receptus)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여러 예는 16세기 성경학의 총결산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다.

### 3. 2부: 제임스왕역을 만들기까지

#### 3.1. 햄튼 왕실 회의

제2부는 3명의 학자가 제임스왕역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논한다. 먼저 케넷 커티스(A. Kenneth Curtis)는 “햄튼 왕실 회의”(Hampton Court Conference)라는 글에서 제임스왕역이 탄생하게 된 직접

적인 배경을 말한다.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스코틀랜드 출신 제임스가 왕으로 즉위한다. 영국 청교도들은 개혁이 실현되기를 원했다. 제임스왕은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잉글랜드의 제1세가 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제6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통합하여 “위대한 브리튼”(Great Britain)이라 이름 붙였다. 제임스왕이 교회와 정부의 연합과 안정을 원했던 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청교도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3만 명이 죽어갔을 정도로 전염병도 심각했다.

햄튼 왕실 회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604년 1월에 열렸다. 이 회의가 열리게 된 데에는 제임스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에든버러에서 런던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1,000명의 청교도 목회자들이 제임스에게 바친 개혁을 원하는 서명서, 곧 “천인 청원서”(the Millenary Petition)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 청원서는 다음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교회 예배(Church Service), 교회 목회자들에 대하여(Concerning Church Ministers), 교회 생활 및 유지(Church Livings and Maintenance) 그리고 교회 규칙(Church Discipline)이다. 그 내용은 교황의 견해가 아닌 성경만을 교회에서 읽도록 해야 할 것, 목회자들은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 주교들이 교회 수입을 늘리려고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 그리고 교회법이 적절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청원서에 새로운 성경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햄튼 왕실 회의는 1604년 1월 14일과 16일 그리고 18일에 열렸다. 참석자들은 왕과 추밀원 고문관들과 9명의 주교와 수석 사제들 그리고 4명의 청교도 대표들이었다. 제임스왕은 개회 연설에서 이미 안정된 교회 상황에서는 개혁할 것이 별로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회의 첫날에는 청교도 대표들은 배제된 채 교회의 세례, 사죄, 출교에 대해서 다루었다. 둘째 날부터는 청교도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여 질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교회 행정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주교들은 교회의 장로회의(presbyterie)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면 안 되는가?”라는 청교도 대표인 존 레널즈(John Reynolds)의 질문이 그 회의의 정점이었다. 제임스왕은 이에 “주교가 없으면, 왕도 없다”(No bishop, no king!)라는 말로 대답한다. 이런 배경에는 주교회에 대한 배려도 있었겠지만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청교도들에 대한 감정도 들어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레널즈는 새로운 번역 성경이 있었으면 한다고 요구한다. 이유는 헨리 제8세와 에드워드 제6세 때 읽었던 성경은 원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성경이라는 것이다. 제임스왕은 이 말을 좋게 여기는데 그 자신도 당시 가장 많이 읽힌 제네바성경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런던의 주교인 리처드 뱅크로프트(Richard Bancroft)는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오히려 그를 제임스왕역 번역 작업의 의장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 번역 기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정확하고 대중적이고 종파에 치우치지 않고 전국에서 읽을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성경을 빨리 내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번역 원칙으로 분류하자면 원칙 8-14는 정확성에 관한 것이고 원칙 2-5는 대중성에 관한 것이다. 원칙 6은 종파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임스왕은 번역위원회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였고 전국 교회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결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우수한 학자들이 번역한 것을 주교들이 검토하여 추밀원에 제출한 것을 왕의 권위로 승인하였다.

### 3.2. 제임스왕역 초판의 머리말과 난하주에 대하여

다음으로 바클레이 뉴먼(Barclay M. Newman)과 찰스 하우스저(Charles Houser)는 “제임스왕역 초판의 머리말과 난하주에 대하여”(Rediscovering the Preface and Notes to the Original King James Version)에서 이 성경의 머리말과 난하주가 오늘날 성경 번역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한다. 제임스왕역 초판에는 번역자들이 제임스왕에게 바치는 세 쪽의 헌정사와 11쪽에 달하는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라는 머리말이 들어 있다.

머리말의 특징은 한 마디로 이 번역의 당위성을 말하는 변호론(apologia)이다. 이 머리말을 쓴 사람은 나중에 글로체스터의 주교가 된 마일스 스미드(Myles Smith) 박사이다. 첫째 성경 번역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둘째는 원어로 쓰여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누구나 쉬운 말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셋째로 문맥에 따라 언어 선택과 표현에 자유가 있어야 한다. 종교 언어로 굳어 있다고 해서 꼭 그 말과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원어는 같은데 달리 읽은 이사가 35:10과 55:11이 그 한 예이다.

난하주는 번역 원칙 6에 적혀 있는 것처럼 원어를 설명하는 것 말고는 가급적 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난하주가 많은 제네바성경에 대한 반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네바성경의 난하주에 대해서 “매우 편파적이고 비사실적이며 선동적이고 위협성과 도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제임스왕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하는 태도이다. 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왕상 9:12나 잠언 31:4의 난하주 같은 것이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다.

가급적 난하주를 피하지만 원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

명을 난하주에 붙여 원어의 뜻을 밝힌다고 했는데 이는 축자적 번역으로 유명한 제임스왕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26:4의 “Trust ye in the Lord forever, for in the Lord Jehovah is everlasting strength”이다. 이 가운데 “everlasting strength”에는 “Hebrew, the rock of ages”라는 난하주가 붙어 있다. 또한 난하주에는 대체 번역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원문의 뜻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그렇다. 그 한 예가 잠언에서 그 뜻이 가장 모호한 26:10인데, 본문의 주어를 “하느님”으로 읽었으나 히브리어 본문에 “위대한 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하주에서 “높은 이”(a great man)로 읽기도 한다.<sup>3)</sup>

하지만 난하주를 붙이는 일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도 눈에 띈다. “그릇들”(bowels)이라는 말을 시편 25:6에서 “tender mercies”라고 본문에서 읽고 난하주에 그 문자적인 뜻을 난하주에 달아주었으나 창세기 43:30에서는 같은 말을 그대로 “그릇들”로 읽고도 난하주를 붙이지 않았다. 그런데 요한일서 3:17에서는 같은 표현을 “his bowels of compassion”이라고 이중 번역하기도 하였다.

관주(貫珠, cross-references)가 난하주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곧 열왕기상 18:31의 “Israel shall be thy name”이라는 구절에는 그 배경 이해를 돕기 위해 창세기 32:38과 열왕기하 17:34를 보라는 난하주가 붙어 있다.

난하주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성에 충실하다”(gender faithful)는 점을 들 수 있다. 곧 본문에서는 포괄언어를 사용하나 난하주에서 히브리어를 있는 그대로 옮겨놓는다. 난하주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sons of Israel)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자녀들”(children of Israel)이라고 옮긴 것이 대표적이다. 17세기 번역이 이렇게 포괄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놀랍다.

### 3.3. 제임스왕역의 성격과 개정 역사

다음으로 잭 루이스(Jack Lewis)는 “제임스왕역의 성격과 개정 역사”(The King James Bible Editions: Their Character and Revision History)라는 글에서 현재까지 인쇄된 제임스왕역의 여러 판본을 소개한다.

우선 로버트 바커(Robert Barker) 출판사에서 펴낸 1611년판 제임스왕역에는 두 판본이 있다. 하나는 “The Great He Bible”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The Great She Bible”이라고 부른다. 룻기 3:15에서 앞의 것은 “He went into the citie”라고 되어 있고 뒤의 것은 “She went into the citie”로 되어 있기 때문

3) 이 구절은 영어성경 가운데에서도 NJPS나 NIV 그리고 GNT가 모두 달리 읽는다.

이다. 서지학자들은 “He” 성경이 먼저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

1611년판 제임스왕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난하주이다. 이 초판에는 모두 6,637개의 난하주가 있는데 이 가운데 4,034개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77개는 아랍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난하주이다. 2,156개는 대체 번역(alternative readings)이고 63개는 이름의 뜻 설명이고 31개는 케레와 케티브의 이독에 관한 것이다. 신약에 들어 있는 767개의 난하주 가운데 37개는 이독이고, 582개는 대체 번역, 112개는 그리스어의 뜻을 설명하는 난하주이다.

또 하나 중성 소유격으로 “its”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제임스왕역의 특징이다.

제임스왕역 초판은 구약의 커버 페이지에 코넬리우스 볼(Cornelius Boel)의 구리판 조각이, 또 신약 첫 쪽에도 다른 조각이 붙어 있다. 또한 이 초판에는 아담과 이브와 뱀 그림이 영국 문장(紋章)이 그려져 있는 페이지도 있고 두 페이지의 중동 지도 그리고 성경 속의 족보가 34쪽에 걸쳐 들어 있다. 10년 뒤부터는 이들이 빠져있다. 또한 제임스왕역 초판 성경 각 책에는 첫 글자가 장식되어 있는데 높이는 9행에 달하고 넓이는 18 글자에 달한다. 각 장(chapter)의 첫 글자 또한 높이가 5행, 넓이가 11 글자에 달하는 큰 글자로 인쇄하였다.

외경의 경우 이른 판본의 제임스왕역에는 모두 들어 있다. 커버데일 성경, 대 성경, 제네바성경, 감독성경, 라임-듀아이성경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1647년 이후부터 인쇄된 제임스왕역에는 들어 있지 않다. 출판사들이 무슨 근거와 권위로 이것들을 뺐는지 잘 알 수 없다. 영국성서공회는 1826년부터 외경이 들어 있는 성경을 보급하지 않기로 하기도 했다. 미국성서공회도 이 정책을 따랐다. 하지만 인쇄소에 따라 외경을 넣은 성경과 뺀 성경을 계속해서 찍어내기도 한다.

1611년판 제임스왕역은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가로 10인치 세로 14인치의 폴리오 판으로 두께는 3인치였다. 무게는 약 18.5 파운드였다. 신약 또한 따로 검은색으로 인쇄하였는데 12절판 성경이었다. 제목 페이지에는 “교회에서 읽을 것”(Appointed to be read in Churches)이라는 말이 인쇄되어 있으나 어디에도 공인역이라는 기록이 인쇄되어 있지 않다.

1612년에는 로마체로 인쇄된 4절판과 8절판 제임스왕역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들 판 역시 초판의 “hee”(룻 3:15)를 그대로 답습한 판본이기도 하다. 1613년에 나온 폴리오 판 제임스왕역은 초판과 비교하여 400개 이상의 이독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1616년 판 이후부터 나온 제임스왕역은 모두 “교회에서 읽을 것”이라는 말을 빼고 인쇄되었다.

이후에도 잉글랜드의 캠브리지에서 1628년부터 제임스왕역을 인쇄하였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1633년부터 제임스왕역을 인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판본에도 초판의 오류가 계속 이어졌는데 1638년에 가서야 왕실의 명으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정본을 펴냈다. 이 성경은 1762년 파리스(F. S. Paris) 교정본이 나오기까지 124년간 캠브리지의 표본 본문이었다. 1642년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제임스왕역이 인쇄되기도 하였다. 1715년까지 6번 인쇄되어 나왔다.

제임스왕역이 나오는 데에는 인쇄업자들의 영향력도 컸다. 이들은 단순한 인쇄업자들이 아니라 인쇄소를 운영하여 여러 판본의 제임스왕역을 찍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교회 지도자들이다. 옥스퍼드의 주교 존 펠(John Fell), 위체스터의 주교 윌리엄 리오드(William Lloyd),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의 교수 파리스(F. S. Paris), 허트포드 대학(Hertford College)의 히브리어 학자 벤자민 블레이니(Benjamin Blayney), 런던의 사무엘 박스터(Samuel Bagster), 캠브리지의 스크라이브너(F. H. A. Scrivener)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각 시대마다 제임스왕역의 교정본들을 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미국에서 제임스왕역 출판은 독립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미국성서공회(ABS)가 1816년에 설립되어 1821년에 영국성서공회판 제임스왕역을 펴내기 전까지 필라델피아성서공회(1808)와 볼티모어성서공회(1815)와 뉴욕성서공회(1816)가 각각 설립되어 주로 영국에서 들여온 연판으로 제임스왕역을 펴냈다. 미국성서공회는 1821년 처음으로 관주와 연대기와 각 장 요약이 들어 있는 제임스왕역을 펴냈다. 1827년부터는 영국성서공회의 방침을 따라 외경을 포함하지 않은 제임스왕역을 출판하였다. 이즈음부터 다른 출판사들은 제임스왕역의 미국성서공회판을 표준판으로 인식하였다. 이후 200년 동안 이런 관행이 이어졌다. 미국성서공회는 1841년에 법인체로 전환하고 정확한 제임스왕역을 인쇄하기 위해 미국성서공회 1833년판과 영국의 옥스퍼드판, 캠브리지판, 에든버러판과 비교하고는 24,000개의 이독이 있음을 밝혀냈으나 교리나 성경의 가르침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근거하여 1850년에는 신약 개정본을 그리고 1852년과 이듬해에는 성경전서 개정본을 펴내고 미국성서공회의 표준판으로 인증했다. 1856년에는 제임스왕역 강단성경(a pulpit Bible)을 펴내고 1611년 이래로 가장 좋은 판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런 주장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출판사들은 미국성서공회의 이 본문에 “옥스퍼드판과 미국성서공회 표준판과 일치하는 본문” 등과 같은 표기를 하고 제임스왕역을 출판하였다.

이후에 판형을 달리하거나 또는 여러 설명이나 도표 등이 들어 있는 제임

스왕역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영어 개역(English Revised Version)과 미국표 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이 출판되고 나서 미국성서공회는 정관을 바꾸어 여러 판형의 제임스왕역을 이들 개정본들과 함께 펴내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 글씨로 인쇄한 판본들이다. 이들 판본은 19세기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로 개인 출판사에서 펴낸 것들로, 지금도 붉은 글씨 판 제임스왕역이 출판되고 있다.

21세기 현재 출판되고 있는 제임스왕역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1611년 판을 다시 찍어낸 것으로 토마스 넬슨 출판사의 1987년 판과 헨드릭슨 출판사의 2003년 판이다. 둘째는 철자와 대문자와 발음과 이탤릭체 등 여러 이독을 그대로 찍어내는 유형이다. 영국의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출판사 그리고 미국의 토마스 넬슨 출판사가 지금도 이러한 유형의 판을 펴내고 있다. 셋째는 미국의 군소 출판사에서 찍어내는 유형으로 대표적인 것이 미시간의 World of Grand Rapids 출판사가 펴내는 판본들이다. 미국식 철자를 담고 있지만 때로 통일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는 미국성서공회 표준판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식 철자로 고친 판본이다. 다섯째는 미국의 존더반 출판사에서 2002년에 펴낸 것으로 스크라이브너(Scrivener)가 1870년에서 1873년 사이에 편집한 판본을 사용한다. 이 판본에는 용어 색인이 들어 있다. 또한 미국성서공회 표준판의 끝에 붙어 있는 500여개의 낱말이 어떻게 현대에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운문은 행갈이를 하였고 이탤릭체를 종종 사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 4. 3부: 제임스왕역 이후의 성경 번역 세계

##### 4.1. 제임스왕역과 유대인 성경 번역

제3부에는 “제임스왕역 이후의 성경 번역 세계”(The World of Bible Translation After the King James Version)라는 제목으로 다섯 학자의 글이 실려 있다. 먼저 그린스푼(Leonard J. Greenspoon)이 “제임스왕역과 유대인 성경 번역”(The King James Bible and Jewish Bible Translations)이라는 글에서 유대인들의 영어 번역 성경 전통과 제임스왕역의 상호 영향 관계를 논의한다. 우선 그는 중세의 유대인 성경주석가이며 히브리어 학자인 데이빗 킴키(David Kimchi)의 이샤야 주석은 제임스왕역의 히브리 본문 해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1800년 이전에 나온 유대인들이 번역

해낸 영어성경은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용어가 모두 제임스왕역과 똑같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 영어성경이란 회당에서 사용하는 기도서의 성경 본문을 말한다. 18세기 말에는 히브리어 본문을 제임스왕역과 라쉬의 주석을 난하주로 실은 성경을 영국 유대인들이 사용하기도 했다. 이즈음 이삭 델가도(Isaac Delgado)는 오경 번역을 새로 펴내기도 했으나 제임스왕역을 많이 따랐고 약간 고친 것뿐이었다. 1841년에는 데이빗 아론 데 솔라(David Aaron de Sola)가 성경 전체를 번역하기도 했다. 이어서 데이빗 아셔(David Asher)나 메리 윌슨 카펜터(Mary Wilson Carpenter) 같은 이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여 펴내기도 하였는데 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펴낸 번역들이었다. 이후에도 1855년에 말커스 캘리쉬(Marcus Kalisch)가 출애굽기를, 아브라함 엘자스(Abraham Elzas)가 1870년대에 잠언과 욥기와 소예언서 몇권을 펴냈는데 제임스왕역과 달리 본문을 읽고자 한 부분 번역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번역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문 이해를 담고 있는 점이다. 유대인들의 관습(레 23.40)이나 넘느절(유월절)과 칠칠절의 시기를 말하는 본문(레 23.15)에서 제임스왕역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국에서 부분적으로 유대인들의 성경 번역이 나오다가 드디어 1917년에 미국에서 유대인들만의 번역이 나온다. 미국 유대출판공회(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에서 펴낸 성경이다. 하지만 JPS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성경 또한 용어와 표현 면에서 제임스왕역을 개정한 RV와 무척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는 미국 유대인들이 빨리 영어로 자신들의 성경을 갖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대 초부터 해리 올린스키(Harry M. Orlinsky)의 주도하에 JPS의 전통을 잇는 성경 번역 작업이 추진되어 결국 1985년에 NJPS가 나오게 된다. 편집자의 말처럼 이 성경은 “기능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을 추구하는 번역 정신에 따라 나온 번역으로 제임스왕역이나 그 개정본인 RSV와 NRSV와는 선을 긋는 번역이었다. 미국의 보수파와 개혁파 유대인들은 이 번역을 대본으로 NJPS Torah Commentary 같은 오경 주석뿐만 아니라 Etz Hayim과 The Jewish Study Bible과 같은 해설 성경을 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유대인들의 영어번역 성경은 지난 세기 후반까지도 제임스왕역이나 그 개정본인 RV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 4.2. 아프리카계 미국과 그 교회에 미친 제임스왕역의 영향

쉐릴 샌더스(Cheryl J. Sanders)는 “아프리카계 미국과 그 교회에 미친 제임

스왕역의 영향”(The KJV’s Influence on African Americans and Their Churches)이라는 글에서 제목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그 교회에 미친 제임스왕역의 영향을 논한다. 특히 자신의 신앙 함양에 제임스왕역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에서 묵회하면서 자신은 제임스왕역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신앙 공동체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제임스왕역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어렸을 적 할머니가 그에게 사준 제임스왕역은 그의 신앙 형성에 버팀목이었다. 특히 그림이 들어 있던 제임스왕역은 성경의 이야기와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공부해 가면서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이 백인들로 잘못 묘사되었다는 것도 깨달아갔다. 아무튼 집에서나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늘 외던 십계명과 시편 23편, 팔복과 주기도문은 모두 제임스왕역 속에 들어 있는 본문이었다.

워싱턴 디씨에 있는 제3번가 하나님의 교회(the Third Street Church of God)의 담임목사인 그는 외할머니 때부터 4세대가 이 교회에 다니기도 하였는데 그는 20여년의 묵회생활 동안 줄곧 제임스왕역을 사용하고 있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 New Living Translation이나 NIV를 사용하기도 하나 언제나 인용하는 것은 제임스왕역이다. 친숙할 뿐만 아니라 포용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큰 강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껏 애용하는 성경 용어 색인도 제임스왕역에 기초한 Young’s Analytical Concordance of the Bible이다. 성만찬을 할 때나 세례를 베풀 때도 인용하는 성경은 제임스왕역이다. 집에 있거나 병원에 있는 환자 교우들을 심방할 때나 장례예배에도 제임스왕역을 사용한다. 교회의 여러 행사나 모임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예식서 또한 제임스왕역에 기초한 예문을 사용한다. 교회 강단용 성경도 또한 제임스왕역 성경인데 따라서 여성의 날이나 남성의 날 또는 교회 생일 때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당연히 강단용 성경인 제임스왕역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해서 제임스왕역을 본문으로 삼고 예배나 성경공부를 위해서 여러 해설을 붙인 성경들이 출판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케인 펠더(Cain Hope Felder)가 편집한 Original African Heritage Study Bible (1993)과 미국 흑인교회 전국의회가 펴낸 African American Devotional Bible (1997) 그리고 미국성서공회가 펴낸 African American Jubilee Edition, King James Version (1999)이 있다.

Original African Heritage Study Bible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글과 지도와 찬송이 들어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가 좋아하는 101 성경 구절”이 들어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설문 조사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또 다른 모임에서 기도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frican American Devotional Bible에는 312개의 예배용 읽기가 들어 있다. 유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 지도자들의 글을 모은 것으로 흑인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로 쓴 글들이다. African American Jubilee Edition, King James Version은 성경과 관련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자들이 쓴 학문적인 글을 모은 책이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책은 맥케리(P. K. McCary)가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언어로 번역한 *Black Bible Chronicles: From Genesis to the Promised Land*이다. 이 번역의 창세기 1:1-3을 제임스왕역과 함께 인용해보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KJV)

Now when the Almighty was first down with His program, He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earth was a fashion misfit, being so uncool and dark, but the Spirit of the Almighty came down real tough, so that He simply, said, “Lighten up!” And that light was right on time. (Black Bible Chronicles)

제임스왕역과는 사뭇 다르게 풀이역에 가깝고 또한 속어를 포함한 입말로 옮긴 번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제임스왕역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독교인들에 미친 영향을 말할 때 먼저 노예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 속의 아프리카인 가운데 하갈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다. 들로레스 윌리엄스(Delores Williams)의 *Sisters in Wilderness*라는 책은 하갈을 성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하여 자식을 지켜줄 수도 없이 고통스럽게 살았던 노예로 잘 설명한 책이다. 아프리카계 미국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하갈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아주머니 하갈의 자녀”(Aunt Hagar’s children)라는 전설이 있는데, 이 또한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통당해 온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노예 경험을 담고 있다. 저자는 또한 *Slavery and Conversion: An Analysis of Ex-Slave Testimony*라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합리화한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프리카계 미국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성경



속에서 정의와 평등과 자유의 개념을 끄집어내어 읽어왔다. 제임스왕역의 언어와 이미지로 노예 폐지를 외쳤던 이들은 썬저너 트루쓰(Sojourner Truth), 프레더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 데이빗 워커(David Walker), 마리아 스투왓트(Maria Stewart)가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기도와 노래와 설교에 미친 제임스왕역의 영향 또한 폭넓다. 다음은 이러한 영향을 연구한 책들이다. 제임스 워싱턴(James Melvin Washington)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기도를 모아 편집한 *Conversations with God* (1944)은 그중 하나이다. 또한 하워드 썬먼(Howard Thurman)의 *The Negro Spiritual Speaks of Life and Death*도 흑인영가의 의미를 탁월하게 해석한 책이다. 인류학자이며 언어학자인 월터 피츠(Walter F. Pitts, Jr.) 또한 *Old Ship of Zion: The Afro-Baptist Ritual in the African Diaspora*라는 책에서 아프리카계 미국 남부 침례교인들의 예배에 오래된 성경의 표현이 20세기 흑인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었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민속학자 제랄드 데이비스(Gerald Davis)는 *I Got the Word in Me and I Can Sing It, You Know: the Performed African American Sermon*라는 책에서 설교가 어떻게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속 전통에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 4.3. 다문화간 역사적 기획으로서의 성경 번역

다음으로 “다문화간 역사적 기획으로서의 성경 번역”(Bible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Historical Enterprise)이라는 제목으로 라민 썬네(Lamin Sanneh)가 문화적 측면에서 성경 번역을 말하고 있다. 곧 제임스왕역은 성경의 증언을 영국의 언어로 현실화한 것이며 한층 성숙해진 영국 국교회가 *missio dei* 신학을 표현한 것이다. 제임스왕역 번역가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권에도 속박 받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 성경 번역은 평범한 일상 영어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곧 그 결과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문화적 혁명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번역은 왜 필요한가? 이전 번역에 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려는 신학적 담화로서 성경 번역은 필요하다. 따라서 누구나 읽고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쉬운 일상어로 번역되어야만 한다. 이런 정신은 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제임스왕역의 번역가들은 서문에서 “번역이란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여는 것이고 … 샘물을 길어 수 있도록 덮개를 벗기는 일이라”고 했다. 곧 예수님은 번역 속에서 태어나셔서 필연적으로 다른 문화를 양자로 삼아야 할 운명이었으며 영어로 표현되는 그의 메시지도 그 속에 포

함된다.

신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인류를 가르치시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듯 새로운 번역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옛 번역은 나름의 가치가 있기에 오래도록 기억하고 존중해야 한다. 정말 제임스왕역은 틴들역, 제네바성경, 대 성경, 감독성경과 같은 이전에 나온 성경들을 충분히 참조하여 나온 성경이다. 또한 제임스왕역은 자유로운 학문적 탐구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견해를 배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어떤 배타성이나 우월성도 배제한다는 뜻이다. 곧 해석의 자유를 가리킨다. 또한 제임스왕은 새로운 성경의 출판으로 종파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임스왕역은 읽기와 듣기의 조화를 이룬 성경이다. 그만큼 접근하기에 쉬운 책이다. 그만큼 여러 견해를 지닌 수많은 학자들이 함께 공들여 펴낸 성경이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격언과 경구가 이 속에 들어 있는데 덜 배우고 덜 종교적인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번역가들의 말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간결하고 단순하고 알아듣기 쉬운 제임스왕역은 어떤 면에서 현대역보다 더 나은 면도 있다. 이런 측면은 제임스왕역 번역가들의 문화적 배경, 곧 이야기가 풍부했던 그들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 4.4. 언제나 듣는 음악: 제임스왕역과 영문학

다음으로 데이빗 라일 제프리(David Lyle Jeffrey)는 “언제나 듣는 음악: 제임스왕역과 영문학”(Habitual Music: The Kames James Bible and English Literature)이라는 글에서 제임스왕역이 영문학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설명한다.

최근까지도 제임스왕역이 시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1968년에 퓨리처 상을 받은 안토니 헤히트(Anthony Hecht)나 1957년과 1989년에 같은 상을 두 차례나 받은 리처드 윌버(Richard Wilbur) 그리고 1978년에 이 상을 받은 하워드 네메로브(Howard Nemerov)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네메로브의 “Einstein and Freud and Jack”이라는 시는 제임스왕역이 어떻게 시 속에 녹아 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로 이 시는 이렇게 끝맺는다.

Of making many books there is no end,  
And like it saith in the book before that one,  
What God wants, don't you forget it, Jack,

Is your contrite spirit, Jack, your broken heart.

이 시 속에는 제임스왕역의 전도서 12:12와 시편 51:17이 절묘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대한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위대한 독자들이다. 뛰어난 표현, 음율이 기막힌 수사어구, 지혜의 말이 가득하고 또 풍요로운 작가들의 유려한 문장은 성경에 깊이 침잠하여 나온 결과이다. 그래서 소설가 로렌스(D. H. Lawrence, 1885-1930)는 어린 시절부터 이해가 될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깊이 생각하여 감정과 사고의 전 과정에 성경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한다.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 또한 “나의 문장은 어릴 적 성경과 천로역정과 카셀의 해설 셰익스피어에 깊이 빠져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비슷한 말을 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셰익스피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성경은 제네바성경이었으나 그가 제임스왕역이 나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다. 제임스왕역의 시편 그리고 잠언의 대구법 문장은 또한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수놓는다. 존 밀턴도 영어와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었지만 특히 제임스왕역은 어릴 적부터 그가 읽은 성경으로 그의 작품 속에 들어 있는 용어와 이미지와 운율은 바로 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화사적으로 볼 때에도 계몽주의 철학자 존 록(John Loke)을 비롯하여 18세기와 19세기에 활동한 시인과 소설가와 드라마 작가와 정치가들에게 제임스왕역은 문장과 문학적인 면에서 제임스왕역을 표준으로 삼고 작업을 하였다. 이 가운데에는 『황금가지』를 쓴 유명한 신화학자 제임스 프레이저(James G. Frazer)도 들어 있는데 그는 제임스왕역의 구절들을 뽑아내어 *Passages of the Bible Chosen for Their Literary Beauty and Interest* (1895)라는 책을 편집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의 유명한 영문학자 루이스(C. S. Lewis)는 제임스왕역 문체가 이상처럼 문학의 규범이 되어 독자들이 어떤 작품이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19세기와 20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제임스왕역은 문학 교육의 표준으로도 사용되었다. 헉슬리(T. H. Huxley)의 *A Bible Reading for Schools: The Great Prophecy of Israel's Restoration* (Isaiah, Chapters 40-66), *Arranged and Edited for Young Learners* (1872)와 *McGuffey's Eclectic Readers*가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다.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래도록 읽히고 있는 *Brown's Grammar* (1856, 1863)도 마찬가지이다.

음악과 제임스왕역의 관계를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

이 헨델의 메시아(1742)이다. 소암 제닌스(Soam Jenyns)가 이 음악의 대본을 썼는데 그 가사는 제임스왕역에서 온 것으로 지금껏 우리는 이 오라토리오를 듣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제임스왕역 이사야 40장에서 온 “위로하라, 내 백성을”(Comfort ye, my people)이 가장 유명한 부분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시문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우드(Robert Lowth 1710-1787)는 그의 유명한 책 *De Sacra Poesi Hebraeorum Praelectionones*에서 구약 시에 대구법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히브리 시가 그리스어나 라틴어 시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것이다. 제임스왕역의 번역가들은 이런 특성을 잘 간파하고 대구법에 맞추어 히브리 시를 잘 번역했다고 했는데 그 또한 자신의 저작을 영어로 번역할 때 제임스왕역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왕역 속의 시, 곧 그 헤브라이즘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시를 쓴 이로는 유명한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이 있다. 특히 “장엄함”이라는 성경 속의 예언-묵시문학적 비전을 그는 자신의 여러 시 속에 녹여내었다. 그의 시 속에는 이사야와 에스겔의 영향이 가득하다.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 1772-1834)라는 시인의 시 또한 제임스왕역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의 상상력은 성경 속의 히브리 시에 있다고 하였다. 유명한 시인들 말고도 제인 에어를 쓴 샬롯 브론테(1816-1855)나 죠지 엘리엇(George Elliot) 그리고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 같은 소설가들도 제임스왕역을 인용하거나 그대로 용해하여 소설 속에 집어넣기도 하였다. 존 러스킨 같은 경우는 제임스왕역 시편 119편을 통째로 다 외웠던 인물로 유명하다.

제임스왕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중 앞에서 읽기에 정말 훌륭한 성경이라는 것이다. 곧 읽기용 성경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에는 지금도 제임스왕역을 예배 때 큰 소리로 읽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아주 유명한 예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이다. 헨델의 메시아가 제임스왕역의 목소리로 크게 울려 퍼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 4.5. 오직 제임스왕역 운동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 제임스 화이트(James R. White)는 “오직 제임스왕역 운동에 대한 비판”(A Critique of the King James Only Movement)이라는 글에서 제임스왕역만을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한다. 먼저 이 운동의 중심 인물들을 소개한다. 1980년대에 Which Bible Society를 세운 데이비드 홀러(David Otis Fuller)와 칙 출판사를 세운 잭 칙(Jack Chick) 그리고 *The Christian's*

*Handbook of Manuscript Evidence* (1997)를 쓴 피터 러크만(Peter Ruckman)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에 나온 ASV, RSV, NASV 등의 영어성경이 제임스왕역과 같은 계열의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제임스왕역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홍보한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개일 리플링어(Gail Riplinger)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In Awe of Thy Word*라는 책에서 제임스왕역의 운율과 시가 바로 이 성경이 영감이 가득한 책이며 완전하고 순수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주장 가운데에는 NIV와 NASV와 같이 새로 나온 성경 이름에서 AV를 빼면 SIN이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허무맹랑하기까지 하다.

제임스왕역만을 고집하고 옹호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제임스왕역이 나오게 된 사정이나 배경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제임스왕역의 머리말을 읽어 보면 왜 새로운 번역을 내놓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이전 번역들은 라틴어에서 번역된 것이라는 점이다. 제롬의 말을 인용하여 번역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번역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나온 여러 영어번역도 참조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제임스왕역의 번역가들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여 제임스왕역을 내놓았다. 그리고 원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언어로 번역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제임스왕역만을 고집하는 이들의 문제점은 제임스왕역의 권위에 의문을 던지면 성경의 권위에 의문을 던진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몇몇 구절 속에서 다른 번역들이 제임스왕역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디모데전서 3:16의 경우이다.

And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KJV)

By common confession,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He who was revealed in the Flesh. (NASV)

여기서 제임스왕역만을 고집하는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NASV가 “God”을 “He”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낮추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성경이 마태복음 4:18에서 “Jesus”를 “He”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또한 사도행전 19:10에서 “the Lord Jesus”를 “the Lord”로 바꾸고 또 사도행전 16:31에서 “the Lord Jesus Christ”를 “the Lord Jesus”로 바꾸어 예수님의 호칭을 줄여버렸다고 비난한다. 또한 NIV가 본문비평의 결과를 반영하여 요한복

음 5:4를 난하주로 처리한 것을 알았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바꾸었다고 말할  
을 것이 뻔하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18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KJV)

No one has ever seen God;  
It is God the only son, who is close to the Father's heart,  
who has made him known. (NRSV)

NRSV에는 그리스도를 하느님이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KJV는 그렇지 않  
다. 그렇다면 KJV가 말씀을 오독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제임스왕역만을 고집하는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원어성경이다.  
특히 신약의 경우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이른바 텍스투스 레캡투스(Textus  
Receptus)이다. 최근에 나온 NKJV도 제임스왕역과 똑같이 텍스투스 레캡투  
스를 번역 대본으로 삼아 나온 영어 번역이다. 텍스투스 레캡투스는 비잔틴  
본문 유형이다.<sup>4)</sup> 현존하는 그리스어 본문 유형의 4/5는 비잔틴 본문 유형이  
다. 그런데 이 비잔틴 본문 유형은 10세기에서 15세기의 것들이다. 따라서 상  
당히 늦은 시대의 본문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어 사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본문 유형(the Majority Text)이 현대 번역본들의 그리  
스어 대본보다 우월한 본문 유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제  
임스왕역과 텍스투스 레캡투스를 비교해 보면 약 1,800군데가 다르다. 그런  
데도 제임스왕역을 고집하는 이들은 그리스어 원문으로서 텍스투스 레캡투  
스를 옹호하고 나선다. 그런데 대다수 본문 유형(the Majority Text)이라는 것  
도 시대적으로 달랐다. 기원후 1천 년대의 대다수 본문 유형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유형이다. 곧 텍스투스 레캡투스 본문 유형이 아니라는 말이다. 가장 이  
른 시기의 그리스어 사본들은 언셜 본문들이라고 해서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  
고 낱말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마침표 같은 것도 없다. 그러나 제  
임스왕역과 NKJV가 대본으로 삼았던 텍스투스 레캡투스는 10세기경 이후  
의 소문자 사본에서 온 것이다. 요즘 현대역은 이보다 이른 시기에 나온 알렉  
산드리아 본문 유형을 모아서 만든 네스틀레-알란트 판을 대본으로 삼아 번  
역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렇게 번역 대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이외에도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 서방 본문 유형, 가이사랴 본문 유형이 있다.

제임스왕역이 대본으로 삼았다고 하는 텍스투스 레캅투스라는 그리스어 본문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이며 인문학자였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rius Erasmus)의 작품에서 시작한다. 그의 그리스어 신약의 첫 판은 1516년에 나왔는데 그 스스로 급하게 서둘러 낸 본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경우 다른 사본 없이 라틴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집어넣은 것이다.

또 제임스왕역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시내사본(Codex Sinaiticus)이라는 성경 사본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본은 콘스탄틴 폰 티셴도르프(Constantine von Tischendorf)라는 성서학자가 1859년에 시내 반도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발견한 것이다.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던 1500년 전의 신구약 성경 사본이다.

제임스왕역은 비잔틴 본문 전통만을 반영하고 있지만 NASV나 NIV는 이 전통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본문 전통과 라틴어 성경도 고려하여 나온 성경이다. 제임스왕역만을 고집하는 이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성경 사본 전통이 다르다고 해서 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5. 평가 및 제언

위의 책은 이렇게 제임스왕역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과 번역 정신 그리고 이 번역이 나온 이후에 미친 영향에 대해 12명의 학자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책이다. 특히 3부에서 영어권 유대인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제임스왕역의 깊은 영향 속에서 성경을 읽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영문학과 철학 속에서도 제임스왕역의 영향이 깊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왕역과 텍스투스 레캅투스만을 고집하는 이들에 대한 비평도 설득력 있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록으로 들어 있는 제임스왕역 초판의 머리말은 이 번역의 번역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현대에는 그 의미가 바뀐 제임스왕역의 용어도 현대 영어로 풀이해 주어 제임스왕역을 읽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제임스왕역의 본문 분석을 통하여 번역 성격을 설명한 글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제임스왕역을 개정한 RV나 ASV와 함께 분석하여 어떤 영향 관계에 놓여있는지도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Gordon Campbell, *Bible: The Story of King James Version 1611-201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과 David Norton, *A History of the English Bible as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를 읽어보기 바란다. 또한 제임스왕역 이전에 나온 성경과 제임스왕역의 영어와 표현을 함께 분석한 책으로는 David Chrystal, *Begat: The King James Bible and the English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를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제임스왕역과 동 아시아인의 성경의 관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중일(韓中日) 성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보다 깊다는 것이다. 한문성경 가운데에는 1864년에 나온 브리지만-퀄벳슨역이라는 성경이 제임스왕역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성경은 두 미국인 선교사가 번역한 것으로 “한문 타르쿰”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대표본(1854)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성경이다. 대표본이 수려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 원문을 문자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래서 제임스왕역을 많이 기대어 축자적 번역으로 나온 성경이 브리지만-퀄벳슨역이다. 이 성경은 쉐레쉐브스키가 펴낸 북경관화역 구약(1875)과 쉬운 문리역(1902) 그리고 화합본(1919)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첫 일본어 성경인 문어역(1888)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일어 문어역의 용어는 이후에 나온 구어역(1955)과 신공동역(1987)에 많이 들어가 있다. 또한 첫 한글인 예수성교전서(1887)와 구역(1911) 그리고 개역(1938) 속에도 제임스왕역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지금도 읽는 개역개정판(1998)에는 창세기 2:6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안개”는 제임스왕역의 “mist”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칠십인역이나 폐쉬타역 그리고 불가타역같은 고대역이 “강”이나 “샘물”로 히브리어 “에드”를 읽는 것을 보면 이는 분명히 제임스왕역의 영향이 아닐까 추정한다. 또 구역(1911) 시편 23:2의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나 가톨릭성경(2005)의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에서 “잔잔한 물가”는 분명 제임스왕역의 “still waters”를 옮긴 것이다. 시편촬요나 개역개정판 그리고 새번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 “설 만한 물가”로 읽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 요한일서 2:23의 경우 개역개정판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고 읽는데 이 가운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는 뒷부분은 중자탈오 때문에 빠져 있는 사본이 많다. 특히 텍스트스 레캡투스에도 이 부분이 없다. 그러나 한글성경은 구역 이래로 새번역과 개역개정판이 제임스왕역의 전통을 따라 본문에 집어넣은 듯하다.



이렇듯 지금도 우리말 성경 속에 살아 숨 쉬는 제임스왕역은 여전히 우리의 연구 대상이다. 아직껏 제임스왕역이나 이를 약간 고친 RV 또는 ASV와 우리말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임스왕역이 나온 지 400년이 되고 첫 한글 성경전서인 구역이 나온 지 100년이 되는 해에 제임스왕역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주요어>(Keywords)

제임스왕역, 제임스 제1세, 햄튼 왕실 회의, 제임스왕역의 머리말, 제임스왕역의 대본, 제임스왕역의 난하주, 제임스왕역과 유대인 성경 번역, 제임스왕역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제임스왕역과 영문학, 제임스왕역과 텍스투스 레셉투스, 제임스왕역과 한중일성경

King James Version, King James I, the Hampton Court Conference, the Preface of KJV, Textual Resources of KJV, Notes in KJV, KJV and Jewish Bible Translations, KJV and African Americans, KJV and English literature, KJV and Textus Receptus, KJV and Chinese, Japanese, Korean Bibles

(투고 일자: 2011. 8. 23, 심사 일자: 2011. 9. 28, 게재 확정 일자: 2011. 9. 28)

<Abstract>

**Book Review - *Translation That Openeth the Window:  
Reflections on the History and Legacy of the King James Version***  
(David G. Burke, ed.,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9)

Prof. Hwan Jin Yi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book includes three parts: (1) The World of Bible Translation Before the King James Version, (2) The Making of the King James Bible, and (3) The World of Bible Translation After the King James Version. As the subtitle of it shows, it is an anthology of 12 articles about “reflections and legacy of the King James Bible.” From this book we can get the detailed knowledge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ranslation purpose of KJV as well as a variety of influences on later generations. To say nothing of English literature and philosophy, KJV had heavily influenced English speaking Jews and African Americans.

According to the authors of this book, King James I of England initiated the translation project of KJV when he led “the Hampton Court Conference” in 1604 for unity and stability in his church and state. He wanted a new Bible translation: an accurate, popular, nonsectarian, speedy, national, and authoritative translation. The translators consisted of about 50 scholars from Cambridge and Oxford Universities. They took Hebrew and Greek Bibles as their basic texts for their translation. They also frequently referred to the earlier translations such as Bishops’ Bible, Coverdale Bible, Great Bible, Geneva Bible, Matthew Bible, Rheims-Douay Bible, Wycliffite Bible, Tyndale Bible, or the like. KJV’s translation team tried to make their translation in current English as literal as they can. But “elegance was achieved by accident, rather than design”(McGrath).

This book, however, does not contain an article of textual analysis about KJV and its relations to later translations such as RV, ASV, and RSV etc. For this argument, the following books are recommended to read: Gordon Campbell, *Bible: The Story of King James Version 1611-201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David Norton, *A History of the English Bible as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and David Crystal, *Begat: The King James Bible and the English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How about KJV's influence on East Asian Bibles? It is deeper than we think. Chinese Bridgeman and Culbertson's Version (1874), Japanese Meiji Translation (1888) and Korean Old Version (1911) had leaned deeply on KJV for their textual decision and selection of their diction and expressions. Let us take a few examples by Korean Bibles.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s "mist"(Gen. 2:6) seems to come from KJV because LXX, Peshitta and Vulgate take the Hebrew "ed" as "river" or "fountain", or the like. "Still waters", which Korean Old Version (1911) and Korean Catholic Bible (2005) contain in Psalm 23:2, must be KJV's term for MT's "water in places of repose"(me menuhot). In addition, New Korean Revised Version also seems to follow KJV in 1 John 2:23 for the textual decision.